

古代 奴隸制의 研究史的 考察

한 기 영*

目 次

- | | |
|-----------------|-----------------|
| I. 서 論 | IV. Marxist의 연구 |
| II. 15~19세기의 연구 | V. 결 論 |
| III. 20세기의 연구 | |

I. 서 論

어느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예속되어 스스로의 권리가 없고 여러차례 물건으로 취급되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노예”로 규정한다. 그들은 권리를 잃은, 그들 주인의 재산이었다.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노예는, 어느 경우이든 자유로운 인간의 인격의 본질적인 비하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법적·경제적 위치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며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노예와 주인의 예속관계에서는 주인 역시 그의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Hegel의 말은 타당성을 가진다.¹⁾ 노예제와 예속성 사이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수많은 변천단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고대의, 예컨대 Sparta의 Heloten이 결코 경작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노예제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²⁾

노예제는 어느 인간이 다른 인간에 강하게 예속하는 여러가지 상이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의 개념은 아주 분명히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J. Vogt, Sklaverei und Humanität im klassischen Griechentum, in: Sklaverei und Humanität (Historia Einzelschr.8), Wiesbaden 1972, S.3. 이하 S. U. H.로 표시함.

2) N. Brockmeyer, Antike Sklaverei, Darmstadt 1979, S.3,

* 人文大學 助教授

고대에는 어느 인간의 부자유(不自由)는 거의 고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보통때의 노예에 대한 정리가 매우 적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문에 고대 노예제의 사료가 매우 빈약하다. 고대에 있어서 노예이론이나 부자유(不自由)의 정의는 단지 조금 연구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³⁾ 따라서 본 논문은 Norbert Brockmeyer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15~19세기의 연구

노예제의 정리는 고전학 연구 및 역사학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등한시 되었다. 15세기의 Humanist들은, 고대의 고전학자로 부터 철학적 기초를, 로마법으로 부터, 제도로서의 노예제의 실제적 승인을 물려 받았다고 J. Vogt는 강조했다.⁴⁾ Gioviano Pontano(1426~1503)는, 노예가 인간의 당연한 자유에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아주 오랜 옛날에 시작했음은 확실하다고 (Obgleich die Sklaverei der natürlichen Freiheit widerstreitet, so steht doch fest, daß sie in ganz alter Zeit begonnen hat.) <예속론>의 앞부분에서 쓰고 있다.⁵⁾ 이러한 주장을 위해 Pontano는 그리이스인과 이방인 사이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 Servati를 뜻하는 고전적 선례에 따라, Servi라는 이름을, 피살되지 않고 승리자의 소유물로서 살아 남게된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Stoa학과와 기독교의 견해에서 Pontano는 인간적 본성에 어긋나는 노예제의 모순을 느꼈다. 그러나 ius gentium(만민법)의 실천과 더불어 주인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을 권함으로써 만족했다.

1613년, 고대 노예제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쓴 Lorenzo Pignoria는 노예제를 인권의 모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ignoria 역시 부자유(不自由)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드러운 취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⁷⁾ 따라서 이시대의 언어학자도 법률학자도 16세기 이래의, 식민화의 특성 가운데 강하게 다시 등장한 노예제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홀란드인 Hugo Grotius 역시, 전쟁포로가 노예로 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노예로 팔릴 수 있다고 믿었다. Grotius는 그의 언어학적 및 역사학적 저술 외에도 중요한 법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그의 작품 <전쟁과 평화의 법>(De iure belli ac pacis: 1625)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노예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한 17세기 초 Humanismus가 노예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음미할 수 있다. (Es liegt nahe, bei Grotius, der neben seinen philologischen und historischen Arbeiten bedeutende Schriftenzur Rechtsgelehrsamkeit herausgebracht hat und mit seinem Werk De iure belli ac pacis(1625) berühmt geworden ist, die Frage zu prüfen, wie der Humanismus zu Anfang des 17. Jahrhunderts, als der Sklavenhandel in Gang gekommen war,

3) Ibid., S.4.

4) Ibid., S.16.

5) S. U. H., S.116.

6) Ibid., S.116.

7) N. Brockmeyer, op. cit., S.16.

das problem der Sklaverei gesehen hat.)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비로소 모든 인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예고했다.

식민지에서 노예제에 대항하는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엔 기독교 단체 특히 Quaker교도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없애려는, 오래 계속된 노예제 폐지운동은, 고대 노예제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새로이 불러 일으켰다. John Locke이래 인간의 당연한 자유의 원칙이 주장되었으며, Montesquieu에 의하면 노예제는 시민권은 물론 자연권에 위배되고 “태어날 때부터의 노예”라는 Aristoteles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⁹⁾

Rousseau는 인간이 원시시대 이래 사회적으로 부자유(不自由)로울 수도 있으나 자연인은 그래도 자유롭다고 했다. 독일 신인문주의(Neuhumanismus)에 있어서 Wilhelm von Humboldt는 고대 노예제를, 그리스인이 그들의 문화적·정신적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견해는 그뒤 계속하여 특히 19세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노예제의 부인(否認)은 국가다음과 문화의 높은 가치를 비로소 가능하게 했다.

한편으로 1789년 Johann Friedrich Reitemeier는 보편적인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의 이념을 강조했다. 비록 우리들의 문제 제기가 변두리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A. Boeckh의)아테네인의 국가경제(가 언급되어 하며, A. Boeckh는 통털어 아테네의 사회사 및 재정사에 근본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¹⁰⁾ Henri Wallon은 식민지에 있어서 노예제지를 위한 적극적 정치적 투쟁에 참여했다. 1837년 Paris 도덕 및 정치 학회가 현상문제로 내어 걸었던 고대 노예제 폐지의 원인 그리고 서유럽 문명의 기초에서 봉건적 예속화로의 변화의 과정을 입증하는 현상 논문의 수상자(受賞者)가 되었다. Wallon은 고대 노예제에 대하여 3권의 방대한 분량의 글을 썼다. Wallon은 식민지에 있어서의 노예제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그의 책의 머릿말을 끌어 냈으며 그 문제에 관한 최종 법률의 준비 위원이 되었다. 이리하여 노예제의 폐지를 규정한 1848년 법의 취지로써, 1879년 Wallon의 책 제2판 서론을 끝낼 수 있었다.¹¹⁾

오늘날까지도 기초가 되고 있는 이 작품에 그 시대의 정치 및 학술적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었다. Wallon에 의하면 노예제는 악(Böse)에 기인하며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인과 노예에게 다같이 비극이다. 노예제는 고대의 사회 및 경제가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제도이다. 악은 노예제에로 돌아가고 선은 자유에로 돌아간다. 점차로 도덕이 바뀔에 따라 기독교가 처음으로 보편적인 노예해방의 과업을 완성했다.¹²⁾

W. Richter는 노예제의 근거를 어느 일정한 문화단계에서 도와주는 보조인의 필요성에 두었다. 고대에 있어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는 거의 예외없이 개별적 전체 인구의 자유를 생각할 수는 없었다. Paul Allard는 고대 노예제의 극복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강조했다. 당연한 논리로 생각된 인간의 평등은 노예제의 폐지를 이끌어야만 했다. 사회가 기독교화한 후에 교

8) S. U. H., S.120.

9) N. Brockmeyer, op. cit., S.17.

10) Ibid., S.17f.

11) S. U. H., S.98f.

12) N. Brockmeyer, op. cit., S.18.

회는 기독교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Allard는, 경제적 요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종교적 생활만을 관찰했다.¹³⁾

A. Tourmagne에 의해 보편사적 견지에서, 씌어진 책은, 지난세기 동안의 노예해방의 과정 및 특히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불확실 하게된 노예제의 잔재의 흔적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사건 및 상황을 통해 강하게 부각시킨 작품으로는 J. K. Ingram, Ch. Letourneau 그리고 H. J. Nieboer의 것이 있다. 그에 따라서 A. Schneider는 고대 노예제를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노예제보다 비인할 점이 덜한 것으로 보았다. A. Loria는,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바탕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노예제의 비교 분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¹⁴⁾ 19세기 후반에, 근대의 경제이론이 크게 고대사에 영향을 주었다.

K. Rodbertus는 고대의 경제모습을 'Oiknwirtschaft'로 특징 지웠다. 경영의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사람들은 오직 폐쇄된 가정관리만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의 가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품은 대가족(그들의 부양을 위한 몇몇 노예가 있긴 하지만)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되었다. K. Bücher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여러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이론을 전개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전체의 고대사는 폐쇄된 가정 경제 시대에 속하며 이러한 경제의 특징은 스스로의 소비와 교환 불능의 경제를 위한 순수한 자가생산이다. 이러한 가정경제는 고대의 노예제를 통하여 최고의 성숙을 경험한다.¹⁵⁾

사회학자 Max Weber는 교환경제적, 시장에 의존하는, 일종의 자본주의적 고대 경제이론을 내세웠으며, 이것을 노예제의 발전한 단계에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Weber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제란, 무엇보다도, 경영의 기초를 교환 경제에 두는 것이었다. 모든 생산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교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생산수단 역시 교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노예의 매매는 자본주의적 경영이며 따라서 토지와 노예는 자유로운 교환의 대상이며 틀림없는 자본이라고 설명했다.¹⁶⁾

Eduard Meyer는 이 이론을 좀더 튼튼히 하려고 노력했으며 Bücher(뷔히)의 명제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동시에 그는 서로 다른 그러나 원칙으로는 동일한 역사적 주기 고대, 중세, 근대에 근거를 두었다. 모든 시대는, 봉건적, 노예소유적 및 자본주의적 시기를 거쳐왔다. 고대의 처음과 끝에 노예제를 인정했다. Meyer는 노예제의 절대적 우세와 해체를 근본적으로 정치적 요인에서 설명했다.

Greece인은 무역과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노예제의 법치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Greece 세계에서, 무역과 수공업을 주도한 사회계층은 비록 자유 노동이 언제나 경쟁의 상태로서 승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값싼 노동력을 더 좋아했다. Rome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지주들이 세계 제국의 건설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대량의 노예로써 대농장(Latifundium)을 경

13) Ibid., S.18f.

14) Ibid., S.19.

15) Ibid., S.19.

16) Ibid., S.19f.

영했다. Meyer는 기원전 1세기를 고대 노예제의 절정기로 특징짓고 그뒤 200년 후에는 이 제도가 의미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다시 예속상태로 되돌아 갔으므로) 특히 Meyer는 K. Marx와 F Engels의 주장과는 정신적인 대립 상태에 있었으며, 원시사회로 부터 고대의 노예제, 중세의 농노제를 거쳐 근대의 자유로운 노동 계약에 이르기까지 노동관계의 법칙적인 연속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논쟁하였다.

Meyer(마이어)는 경제적 요인외에 정치적 및 그외의 다른 여러가지 역사적 요인들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Meyer는 언젠가 도달되는 모든 미래가 손안에 꼭 붙잡혀 지는 것도 아니며, 역사적 발전이 어느 단계에서 다음의 높은 단계로 간단없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오히려 모든 역사 시대는 그 시대 특유의 위치와 질적인 가치를 가진다.(Vielmehr habe jede Geschichtsepoche ihren bestimmten Platz und qualitativen Wert.) 따라서 고대에는 고대의 특성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고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근대의 발전을 지배하는, 동일한 영향과 법칙이 어떻게 결정적일 수 있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사람들은, 고대문화가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붕괴되고 동시에 동일한 문화단계를 새로이 시작하기 위하여 최고문화 단계의 서양적 인류가 무너지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각 시대는 그 시대의 고유한 순환계도를 가지며, 다음 시대에는 변화한 조건아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하게 순환을 되풀이 한다.

Meyer의 확신은, 역사의 목적이 개별적 사건의 탐구와 설명이라는 점에 있었다. 그는 역사학을 법칙성이 지배하는 학문으로 변형하려는 모든 동시대의 이념에 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면으로 고대에 있어서의 여러 관계의 병행 다른 면에서의 중세 및 근대의 상황의 대비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그는 Homer의 시대를 기독교적 게르만 민족의 시대와 동일시하여 중세로 특징지었고, 고대의 전성기를 근대와 일치시켰다. 그 결과 Homer 시대의 노예관계를 기독교적 중세의 관계와 일치 시킬 때, 그 다음 시대의 노예제를 근대의 자유노동과 같은 단계에 설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나타난다.¹⁷⁾ 역사적 유물론 및 그 영향을 받은 연구에 관해서는 IV. Marxist의 연구에서 다루겠다.

Ⅲ. 20세기의 연구

20세기 초 비(非) Marxist의 연구는 노예제의 기초적 연구를 시작한 이래, 더욱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노예제의 가장 다른 측면에의 풍부한 개별연구에의 방향으로 돌렸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힘쓰지 않았던 비문(碑文), 양피지의 자료에서 노예제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해명을 얻으려고 시도했으나 고대를 위한 제도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 질문은 거의 던지지 않았다. 고대 사회경제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 넣는 중요한 인물로서, 비록 그의 주제가 노예제의 핵심이 아닌 변두리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누구보다도, M. Rostovtzeff(1870~1952)를 들어야 한다. 정보에 있어서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 정도의 그의 방대한 사료(史料) 수집의 토대에,

17) Ibid., S.20f. Brockmeyer의 원문에는 Konsequenz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Widerspruch가 더 좋다.

오늘날 까지도 고대 사회경제사가 의존하고 있다.¹⁸⁾ Rostovtzeff로서는, 시민 생활과 도시문화가 고대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Rostovtzeff가 특히 근거로 했던 고고학적 유물이 극히 드물었던 탓으로, 노예는 그렇게 고려되지 않았다. 고대 노예제 연구 보고의 테두리에서는 역시 방대한 경제사 및 사회사적 전집 및 총서가 언급되어야 한다. 이 책들은 노예제 연구의 방법을 확실히 하고 사실에 입각한 배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20세기 초의 연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Tenney Frank의 <로마 경제사> 및 그가 편찬한 총서 <고대 로마의 경제적 개관>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별 관점 및 관구에 따라 정리된 맨 나중의 개요에서, 독자는 — 유명한 전문가에 의해 편찬된 — 로마 제국의 방대한 경제사 자료를 찾을 수 있다.

F. Heichelheim의 <고대경제사>는 경제생활의 형태학 및 그 깊은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은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고대에 있어서 돈의 의미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좀더 작품을 든다면 — 최근의 것으로 — A. H. M의 '고대 경제사' 및 J. Toutain의 '고대 경제'를 들 수 있다. 또한 J. P. Lévy의 <고대경제>를 언급해야 하겠으나 이 책은 중요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피상적인 것처럼 보인다.¹⁹⁾

Greece사에 관한 것으로 무게있는 작품들은 A. Andréades, E. Cavaignac, G. Glotz, J. H. Hasebroek 및 H. Michell의 책들이다. Hellenism시대사로는 Rostovtzeff와 함께 C. Préaux를 들 수 있고 Rome사로서는 F. M. de Robertis, J. Gagé 및 P. Louis의 작품이 문제적이다. Pöhlmann의 후계자로서 G. Salviolis 및 M. Beers의 작품을 들 수 있으며 특수한 문제를 다룬 연구외에 R. H. Barrow의 <로마제국의 노예제>와 같은 고대 노예제의 훌륭한 연구가 나타났다.

Barrow는 각 시대의 노예생활을 매우 명백히 서술했으며 동시에 그는 가치부여의 태도를 포기하고 오직 근대 노예제와 비교하여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여러가지 개별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W. L. Westermann은 노예제의 전체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 개별연구의 목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Westermann은 특히 Ptolemäish-römischen Ägypten에 있어서의 부자유현상의 현상을 연구했다. 그러나 또한 griechisch-römischen 노예제의 개별문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자유인과 부자유인 사이의 유동성있는 변화를 해명하는데 기여했다.

그의 책 <Greece 및 Rome 고대의 노예조직>에서는 Homer에서 Justinian에 이르기까지의 저명한 자료가 연대기적인 순서로 잘 설명되고 있다. Westermann은 Greece에서의 노예는 대부분의 곳에서 상당한 숫자가 알맞은 역할을 했으며 Hellenism시대에 역할이 줄어들었다. 한편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Rome의 Gutswirtschaft는 대량의 Greece와 Orient의 노예를 서방으로 옮겨 갔다고 지적했다. 노예노동은 로마 공화정 최후 200년 동안, 이태리, 시실리, 북아프리카에서 깊은 사회적, 인간적 구분, 동시에 양적 절정기 및 경제구조에 미친 강한 영향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문명은 주로 노예노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여 노예노동의 범위를 과대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18) Ibid., S.30.

19) Ibid., S.31.

로마 제정 초기 약 200년간 노예취급의 인간성 부여가 현저히 증가했다. 제국의 평화상태와 고대후기의 넓은 시민층의 빈곤화는 노예제의 의미를 후퇴시켰다. 노예제는 로마제국의 몰락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Westermann은 노예제를 인간존재의 현상으로서 봄은 물론, 생산 관계의 요소로서 공공연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너무 실증주의적인 것으로 따라서 역사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시된 Westermann 필생의 작업——죽기 몇달 전에 완성을 본——은 비록 이상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대 노예제의 본질 및 역사를 가장 잘 그리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작품으로 특징지워야 할 것이다.²⁰⁾ Westermann의 작품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체적인 조망을 얻기 전에 노예제의 개별적 문제 및 전망에 이르는 보다 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연구를 촉진시키고, 고대 노예제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 Marxist역사학자들의 깊이 있고 결실있는 연구와 더불어 대화를 추구하는 일이, 50년대 이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나타났다. 덧붙여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상수를 추구하고, 비교연구를 통한 사회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 근대 역사학에 있어서, 점점 더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Annales학파가 사회구조를 방법론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²¹⁾ 노예제의 기초 및 그의 역사적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Greece Rome의 노예제의 전사료를 파악하고 편견 없이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는데 달려 있다고 J. Vogt는 강조한다. Vogt는 하나의 새로운 전체적 설명을 시도하기 전에, 그리고 고대문화에 있어서 노예제의 근본 상황을 확실히 제시하기 전에 수많은 학문적 개별연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전제아래, 그리고 그와같이 계획된 목표아래 Vogt의 주도로 Mainz학회의 논문으로 1953~64 사이에 고대 노예제에 관한 약간의 연구가 나왔으며 1967년 부터는 <古代奴隸研究> Series가 계속 나왔다. 특징을 말한다면 전체의 방향이 Vogt 스스로의 연구의 결과라는 점이다. 1953년 그는 B. C. 5세기 노예의 인간성의 개념특색에의 접근을 시도했다. Aristophanes와 Euripides의 경우에는 물론 Sophist와 Hippokrates의 경우에서도 Vogt는 당시 노예에 대한 작가와 철학자의 관계의 특색있는 성격을 그려내려고 노력하였다.

종교에 대한 사회생활 속에 노예를 포함시키는 강한 자극이 나타났으며 특히 Dionysos숭배 및 Eleusis신비가 그러하다. 대체로 Vogt에게 고대 노예제를 전체 사회의 연관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였다. 물론 그는 노예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선 적게 질문했으나, 현상과 그의 문학적 및 윤리적 평가와의 정신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노예반란의 분석에 바친 그의 2번째 연구에서 J. Vogt는 특히 보다 많은 횡단면에서의 종교적 민족적 동기 및 정치적, 사회적 경향의 위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한 구조분석을 통해서 반란의 본질적 특색이 드러났다. 노예제 현상에 대한 Vogt의 태도의 특색은, 이러한 인간성의 한계를 의식한 “Sklaverei und Humanität”에 잘 나타나 있다.²²⁾ 노예제의 결과로서 인간 스스로의 소외가 나타난 사실은 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기계

20) Ibid., S.32f

21) Ibid., S.33f.

22) Ibid., S.34f.

적 노예조직의 동일한 과정을 발견한 하나의 전주곡이다.²³⁾ Vogt의 견해에 의하면 노예제는 경제적 및 법률적 연속관계 힘의 관계일 뿐만아니라 부정적 성취와 긍정적 성취를 아울러 가지는 우선, 인간적 관계였다.²⁴⁾

1967년부터 <古代奴隸制 研究>의 특별 Series가 나왔는데 그 첫권으로 H. Chantraine의 <로마 왕실의 해방노예와 노예>가 나왔다. 여기에, 보다 넓고, 문헌을 기초로 한, 특히, 왕실과 국가 행정의 복합체가 잘 파악되어 있으며 왕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계속적 연구를 위한 기초가 잘 제시되어 있다. F. Kudlien은 뛰어난 노예집단으로서의, Greece 의술에 있어서의 노예의 의미를 연구했다. F. Kiechle는 초기의 기술혁신에의 왕성한 능력의 유산이 어느 정도까지 노예제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오히려 거꾸로 논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노예제는 기술발전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분야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노예의 번영기에는 수많은 기술혁신이 도입되었다. 기술, 기계 그리고 합리화는 노예의 투입에 있어서도 큰 수익을 얻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힘은 후기 로마 제정기에 점차로 느슨해지고 그것은 기술적 정체(停滯)로 이끌었다.²⁵⁾ H. Bellen은 로마제국에 있어서, 그의 전염병처럼 번진 노예도주의 문제를 연구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특히 농장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결손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도망 노예는 보다 형편이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국가의 모든 대책과 일반적으로, 교회의 방어조치는 노동시장 사정을 토대로 하등의 구제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노예의 도주는 '노예소유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서도 아니고 혁명적 행위로서도 설명할 수 없다. 노예제와 전쟁의 개념에 대해, 전시에 노예를 이용한다는 참으로 모순되는 현상을 K. W. Welwei가 연구했다.

따라서 부자유인(不自由人)을 군에 복무시킨다는 것은 긴급조치로서 평가된다. 노예제와 군복부 사이의 모순을 몇몇 Polis와 군주는, 대체로, 전쟁에 징발한 노예들에게 自由 혹은 심지어 市民權을 준다는가 내지는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했다. 이러한 보상은 물론 전함의 부자유인(노를 짓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노예관계 및 가치질서의 배경에서, 주인-노예 관계의 사회적 의미 및 역사적 진술의 힘을 해명하기 위하여 H. Klees는 Greece의 경제적, 정치적 문헌(특히 Xenophon, Platon, Aristoteles)에 나타난 노예를 연구했다. 개별적 견해에서 유래하는 Marxist역사학자들이 수정한 많은 주제의 고대노예제 연구를 위해, 마찬가지로 Mainz학회 고대사 연구 위원회에서 나온 <고대노예제 연구의 외국작품 번역> Series가 있다. 여기에서는, Marxist와 非Marxist사이에, 고대 노예제 연구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연구에 관해 학문적 수용 및 토론을 쉽게 하기 위하여 주로 러시아 연구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다.

러시아 학문 연구소는 1960년, 고대 노예제를, 처음부터 민족이동의 시기 까지, <古代世界에

23) S. U. H., S.80.

24) N. Brockmeyer, op. cit., S.36.

25) Ibid., S.38f.

있어서의 奴隸史研究(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논문 발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가운데 3권의 책은 Mainz Series로 독일본이 나왔고 보다 넓게 학자들의 비판적 토론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안다.²⁶⁾ 독일의 Mainz에서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방향을 돌려 보겠다.

1978년, 특히 영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고대 노예제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M. I. Finley는 J. Vogt와 함께 서방에서 근대적 노예제 연구를 가장 뚜렷이 연구했다. Finley는 특히 奴隸와 自由人사이의 사회적 중간 계급의 많은 숫자 및 변화의 폭에 대해 언급했다. Finley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노예의 2重의인 面, 즉 인간이며 재산이라는 점, 거기에서 부자유인의 넓은 가능성의 스펙트럼(Spektrum)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A. H. M. Jones는 Demosthenes 당시 Athen에서는 노예와 자유인이 비율이 1:3이라는 것 그러나 노예의 노동은 자유인의 노동에 거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N. G. L. Hammond는 Attika의 노예숫자를 연구했다. G. Thomson은 근본적으로 Marxist의 관점에서 부터 고대사 연구에 접근했다.

P. R. C. Weaver는 수많은 논문에서 로마제국 시대의 노예와 해방노예를 다루었다. 유럽 문명의 전단계를 밝히기 위해서, 중요하고 또 국제적으로 알려진 시도로, P. Anderson의 <古代로부터 封建制에로>를 들 수 있다.

이 책에, 노예제의 생산양식, 고대의 사회관계, 로마제국의 몰락, 동서 유럽에 있어서의 차이는 특색과 더불어 봉건적 생산양식에서의 이행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다.

프랑스 학자로서는, C. Mossé의 이름을 들 수 있는바, 무엇보다도 고대사학회 Kolloquium 및 Besançon(브상송)대학 고대사 연구 센터의 노예제 연구등 이곳에서 지금까지 4권의 책을 내었다.

여기에서 특히 고대 노예제의 상이한 견해, 전공분야의 프랑스 학자들의 보고 및 토론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다양하고,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서로 다른 중간 형태에 있어서 고대 세계의 핵심이 아닌 변두리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다. 문헌 보고와 특히 Marxist관계의 자료 및 그에 대한 토론 등은 이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같은 Series의 책에서 G. Boulvert는 로마제국 시대의 노예 및 해방노예의 문제를 다루었다. J. P. Vernant과 Ch. Parain은 고대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연구의 현향은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예컨대 독일의 Mainz학회, 영국의 Finley 연구소, 프랑스의 Besançon 연구소 등에서 특수한 개별연구와 토론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이들을 고대 노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확실한 기초에서 부터, 고대 문화에 있어서의 노예의 기본적 관계를 하나의 전체적 설명의 테두리에서 한눈에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전차적 설명은 아직 이른것 같은 느낌이지만— 고대 노예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의 개요가 H. Z. (Historische Zeitschrift) 1976년 222호에 J. Deininger에 의해서 나왔다. Deininger는 고대노예 연구에 있어서, Marxist와 非 Marxist의 연구방법 사이의 고무적 경쟁에 대해 참고하도록 제시했고 동시에 양쪽의 변화와 그들 쌍방의 초기에 있어서의 지나치게 일방적인 출발을 승인했다.²⁷⁾

26) Ibid., S.40.

27) Ibid., S.40ff.

IV. Marxist의 연구

고대 노예제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K. Marx, F. Engels 및 그들의 정신적 후계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 생산양식과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형태의 가르침을, 고대를 원시 공산 사회와 봉건사회와의 사이에 놓이는 구성으로 나타내어 주었다. 고대는 경제생활과 정신생활의 기초로서의 노예제를 통해 특색이 나타난 것이다. Marx와 Engels는 물질생활의 생산양식을 전체 생활현상의 근본 조건으로서 증명하려고 하였다.

고대사회를, 아득한 옛날 부터 유래하는 공유재산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았다. 주인은 토지 뿐만 아니라 자기들 위해 일하는 인간을 소유하였으며 그럼으로써 노예제가 형성되었다. Marx와 Engels는 노예노동을 착취의 극단적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자본기는 단지, 노예로 부터 끌어내는 잉여가치만을 생각했다. 2개의 대립하는 계급——노예와 주인——은 지도하는 일과 수행하는 일 사이의 노동 분화를 통해 더욱 특색이 두드러졌다. 직접 생산자 사이의 대립, 노예와 생산 수단 소유자 사이의 대립이 크면 클수록 조직적 감독체제가 더욱 중요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예자가 비로소 Greece의 Polis와 같은 사회적 건설, 따라서 시민의 자유의 실현, 文化의 보호를 가능케 했다. 시민공동체만이 노예노동의 권한을 소유하였다.

따라서 노예 소유주<의 개념은 시민 공동소유의 형태와 연결되어야만 했다. 노예제에 기인하는 경제조직의 일반적 위기가 정복전쟁의 종말과 함께 시작하였다. 값싼 不自由人 노동력과 쇠도가 고갈하고 自由人의 노동은 도덕적으로 배척되었다. 덧붙여 노예 소유사회에서는 강한 수모가 사라지고 대산업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는 경제의 후퇴, 대중의 영세화, 그럼으로써 농노에 기인하는 봉건제의 준비였다.

고대사회는 어느 일정한 점에서는 노예경제에 기인하는 그의 발전이 경제적 및 기술적 영역에서의 정체로 판단되었다. 이점이 Rome 세계가 부딪힌 빠져나갈 길없는 막바지였다. 노예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불가능했으며, 自由人의 노동은 도덕적으로 배척당했다. 노예제는 더 이상 사회적 생산의 근본형태일 수 없으며 자유인의 노동 또한 사회적 생산의 근본형태 일 수가 없었다. 단지 하나의 구제의 방법은, 하나의 완전한 革命이었다. Barbaren의 정복은, 노예 소유국가의 생산 형태의 위기를 통하여 마련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징조아래 진행되었으며, 고대의 몰락과 봉건제의 형성을 촉진하였다.²⁸⁾ 연구사적으로, 노예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토 확장의 필연성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났다. 여기에 표면상 인과율의 사슬이 중요하다: 奴隸制 → 땅의 枯渴 → 토지의 擴張.²⁹⁾

Marx에 의해 가정된 모든 역사의 경제적 법칙성은 역사학에 우선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 이 시대의 사회·경제사가로 B. Büchenschütz가 있다. 이미 언급한 K. Bücher(뵐러)는 고대에 있

28) Ibid., S.22f.

29) Ibid., S.24.

어서 분파한 프롤레타리아 운동 및 사회주의의 출현에 대해 말했다.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자유인 無產者의 有產者에 대한 투쟁만이 고찰되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품위가 낮은 노예는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분의 개선은 점진적인 노예해방, 자유노동에의 이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노예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관제의 전복이었다. 로마의 세계지배는 계급국가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졌다. 노예반란과 노예운동은 사회적인 것으로 불리워져야 한다. 노예운동은 사회전체의 경제적 구성의 개혁 및 다른 면에서의 재산(富)의 분배를 겨냥했기 때문이다.³⁰⁾

1898년 사회민주당원으로서 잠시 그의 교수직을 잃었던 Ettore Ciccotti는 1899년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노예제의 몰락에 관한 책을 발행했는데 그 책은 여러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고, 1910년 "Buchhandlung Vorwärts" 출판사에서 독일본이 나왔다.³¹⁾ 그는 노예제의 해체가 오직 경제적 관제의 변화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Ciccotti는 노예노동을 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의 결정적인 근거로서 노예노동력의 계속적 공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경제의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로 봐야한다. 고대에 있어서 느린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인은 노예노동의 비생산성 일 수도 있다. 자유 노동력과 부자유 노동력 사이의 균형은, 한편으로는, 노예 공급의 후퇴 및 악화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自由人の 예측상태에로의 전락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 결국 중세에 들어와 노예제는 완전히 후퇴하였다.³²⁾

Marxist의 이념의 범위에 또한 >고대세계에 있어서 사회문제 및 사회주의의 역사<를 쓴 Robert von Pöhlmann이 들어간다. Pöhlmann은 당시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특색있는 역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날카로운 대립, 불명등과 부자유증가에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치달는 동안 自由와 平等의 이념이 정치적 발전을 지배했다. 고대의 높은 문화 생활은 노예를 포용하는 대식민 사업, 노동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동시에 Pöhlmann은 사회적, 경제적 불명등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느낀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그가 Sparta의 경우에서 논한, >사회적 혁명<을 몰고 왔다. 하나의 새로운, 보다 나은 경제 및 사회질서의 건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연대의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고대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이라는 그의 진단은 비판적이었다. 제2권에서 Pöhlmann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반자본주의(反資本主義)적 경향을 연구했다. 물론 일면적이긴 하나 고대에 관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현재를 위한 고대사의 개를 실현하려고 시도한 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오늘날 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³³⁾ Pöhlmann의 후계자로서 F. Oertel과 A. Rosenberg를 들 수 있다. Oertel은 >사회적 문제의 역사< 부록을 썼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핵심개념의 분명한 정의가 문제였다. A. Rosenberg는 계급 투쟁의 시각에서 고대를 바라보았다.³⁴⁾

30) Ibid., S.25f.

31) S. U. H., S.102f.

32) N. Brockmeyer, op. cit., S.26f.

33) Ibid., S.27f.

34) Ibid., S.28.

1917년 10월 혁명 이후 Marxist학자들은 고대 노예제 연구에 특히 힘을 기울였다. Marx와 Engels가 완성했고 Lenin, Stalin이 틀을 잡은 역사적 유물론은 모든 공산권 국가에 구속력 있는 역사관이 되었다. 러시아의 연구에서는 노예 소유주 및 착취 형태로서의 노예제를 제거한 노예 혁명이 우선 커다란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기원전 2~1세기의 노예봉기는 Marxist 역사학자의 흥미를 끌었으며, 이러한 혁명의 증명을 위해 연구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봉기가 노예 소유 사회에 대한 노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노예소유의 사회질서는 500년을 더 존속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³⁵⁾ Mišulin, Kovalev, Shebeljew의 연구를 먼저 살펴 보겠다. 그것은 노예봉기를 노예혁명의 첫단계 봉건제에로의 이행을 2번째 단계로 설정한 점이다.

1. 노예봉기(기원전 2~1세기)
2. 봉건제에로의 이행(3~5세기)

1933년의 토론에서 Tjumenev와 부분적으로는 Kovalev도 >발생학적 혁명<의 논리를 내세웠고 더불어 발생학적 혁명이 Gentil소유 사회에서 노예소유 사회에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다고 보고했다.

1947년 Kovalev는 노예혁명의 첫단계 이론을 취소하고, 근본적으로 노예소유 질서의 위기를 2세기 말경으로 삽입하는 동시에 봉건사회의 첫 요인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했다. Mišulin은 노예 소유사회 경제의 내부의, 소위 노동력의 재생산 불가능이라는 점에서 부터 출발했다.³⁶⁾ Mišulin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력의 재생산 불가능은, 외부로 부터의 끊임없는 노예의 유입, 즉 외국인의 강제적인 노예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노예 소유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노예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전쟁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A. G. Prigožin은 Mišulin의 생각을 거절하고 그것을 “Kautskyonismus”라고 했다. Kovalev는, 로마의 어떠한 대전쟁도 노예획득을 목적으로 치루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간접적으로, 로마의 승리는 이태리에로의 노예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Kovalev역시 노예제에 기초하는 경제조직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로서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노예 노동력의 재생산 불능을 고려했다. 노예소유 사회의 몰락을 주제로 한 1951~1956년의 논쟁을 Seyfarth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했다.

1. 착취당하는 지방 농민의 위치
2. 지방의 계급 투쟁 및 농민봉기
3. 제국의 봉건화 및 봉건사회의 중심계급의 형성
4. 어휘의,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적 문제

이 토론은 과도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밝혔다. 러시아, 고대사가들의 견해가 전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女流 역사학자 E. M. Shtajerman은 3세기의 위기에 있어서 노예문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Peculium의 잦은 양도, 유사 소작인으로서 노예의 이주, 해방노예의 증가 및 계급 투쟁의 예리

35) Ibid., S.43.

36) Ibid., S.43ff.

화는 노예 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를 나타내었다. 제정 말기까지 노예제가 생산의 기초로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노예에 기초를 둔 경제 형태는 단지 작은 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토지에서만이 이익이 있었으며 그나마 이러한 토지가 줄어들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했다. 노예는 어떻게 소규모 토지와 결합하고 소작농민은 어떻게 대규모 토지와 결합하게 되었는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작농민의 지위가 노예의 지위와 별 차이 없이 같아지게 되었다.

2번째의 논문에서 Schtajerman은 로마 제국의 서부의 생산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다. 즉 4세기 이후에는 노예 소유 사회라는 말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늦어도 Konstantin대제 이후로 로마제국은 대토지 소유의 국가가 되었고 지주는 소작 농민을 그들 경제의 기초로 하였다. 즉 노예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 형태가 궁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노예제에 기인하는 사회질서의 몰락의 연구에서 Schtajerman은 제정초기에는, 우선, 노예경제의 완성된 형태로 지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3세기에로의 전환기에 비로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드러났으며, 노예경제는 점차로 Kolonat(小作人)에 의해 대체(代替)되었다. 왜냐하면 소작농민다운 노예에 비하여 자기의 경제에 이해관가를 가졌기 때문이다.³⁷⁾

1956년 토론의 확실한 결과로서 다음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2세기에 그 위기가 시작했던 노예소유 내부에 이미 봉건적 요인이 싹트었으나 그래도 노예사회의 표준이 제정시대 전체를 통해서 아직도 그 효력을 유지했다는 점이다.³⁸⁾ 나의 생각으로는 전체적 토론의 내용이 빈약하고 3~5세기 사이의 노예제에 기인하는 생산양식의 표면상의 위기를 언급했으나 어떻게 이러한 위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³⁹⁾ 점차로 Marxist역사학자들에게 — 전혀 사회혁명이 아닌, 사회혁명의 시기에 관해 말한 M. E. W. 13권 <경제학 비판서문 >의 Marx의 인용문에 관련하여 — 노예 소유 사회의 혁명적 해체가 단막극이 아니라 전체 역사시대를 통해 계속했다는 것이 확고하게 되었다. Schtajerman은 기원전 2~1세기 사이의 노예봉기가 노예제의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고전고대 노예제의 확대 및 가부장적 노예제로부터 고전고대 노예제에로의 결정적인 이행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⁴⁰⁾ Schtajerman은 Marxist 발전 도식의 틀에서 새로이 일어난 소작 경제가 혁명이론을 빌리지 않고도 발전적이었다는 주장의 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토지에 그전보다 나은 개간 방법이 적용되었다거나 혹은 경영이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Schtajerman은 사적 유물론(史的唯物論)의 많은 전통적인 These를 깨었지만, 그래도 소작제의 발전에 관한 그녀의 주장은 모든 역사의 발전 법칙에 매혹되어 있었다.

또한 가난한 自由人の 부양으로 인한, 증가하는 노예경제의 비수익성의 기초는 이점에서 옳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Engels의 These 즉, 자유인의 노동천사는 여러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¹⁾ S. L. Kowaljow, A. R. Korsunski, A. P. Kashdan, E. E.

37) Ibid., S.48ff.

38) Ibid., S.53.

39) Ibid., S.55.

40) Ibid., S.57.

41) Ibid., S.60ff. E. M. Štaerman의 <로 마공화국의 노예경제의 변영기 >는 1969년 Wiesbaden에서 독일본이 나왔다.

Lipschiz, A. G. Gemp, S. I. Udalzowa, A. D. Dmitrev, N. N. Belova, Seyfarth, M. E. Sergeenko, R. Günther, Sirotenko, Andreev, E. Engelberg Schrot, Velkov, Mócsy, D. Tudor. L. Vidman 및 Oliva등의 연구는 약한다.

V. 결 론

노예는 自由人の 투쟁을 위한 단순히 수동적인 토대였다.⁴²⁾ 따라서, 고대에는 계급과 계급투쟁은 있었어도, 계급의식은 없었다. Marx-Engels는 고대연구에 틀림없이 자극을 주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고대의 물질적 및 경제적 기초에 대해 질문을 했다. 물론, 이러한 중요하고 결실이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그 당시 단지 소박한 의미로서만 설명되었다는 것은 비극적인 運命이라고 F. Vittinghoff는 강조했다. Marx와 Engels가 아직까지 오늘날 처럼 고대에 정통하지 못했을 당시다. Marx와 Engels의 의견은, 따라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새로운 연구를 위한 도움달기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⁴³⁾ 古代 奴隸制가 유럽과 미국등 민주주의 여러나라에선 아직도 알맞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산세계에서는 확고한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⁴⁴⁾는 Joseph Vogt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세계 각국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받아 들여 비판·분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42) K. Marx, M. E. W. 16. Dietz Verlag, Berlin. 1984, S. 359.

43) N. Brockmeyer, Antike Sklaverei, Darmstadt 1979, S. 24.

44) S. U. H., S. 34.

Zusammenfassung

Ein Forschungsgeschichtlicher Überblick von antike Sklaverei

Han Kee—young

J. Vogt glaubte, daß die antike Sklaverei in den demokratischen Ländern Europas und Amerikas immer noch nicht die gebührende Aufmerksamkeit gefunden habe, während sie in der kommunistischen Welt einer feststehenden Theorie eingefügt worden sei. Mein Aufsatz ist Einführung in Europas Forschungsgeschichtlicher Überblick von antike Sklaverei. Die Meinungen von Marx und Engels dürften demnach nicht als absolut gültig empfunden werden, sondern nützen Ansatzpunkte für weitührende Fragestellungen und neue Forschungen sein.